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회계 개념체계

재무보고

기업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제표는 기업실체가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주석에는 법률적 요구에 의해 작성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은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당기순이익 누적금액이고, 기타 자본요소에는 기타 포괄손익누계액과 자기주식과 같은 자본조정이 있다.

재무정보 이용자

투자자는 기업실체가 발행한 지분증권(주식) 또는 채무증권(회사채)에 투자한 자 등을 말한다.

채권자는 기업실체에 대해 법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금대여자 등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공급자, 고객, 종업원을 포함한다. 본 개념체계에서는 문단 내용에 따라 채권투자자를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기타 정보이용자는 경영자, 재무분석가와 신용평가기관 같은 정보중개인,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및 일반대중 등을 말한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혹은 원칙으로는 기업실체의 가정, 완전공시의 원칙, 계속기업의 가정, 발생주의가 있다.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질적특성이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재무정보의 유용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또는 관련성, 이하 목적적합성은 관련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과 신뢰성이다.

목적적합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신뢰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목적적합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기업실체의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보고 수단이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특수한 목적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부 정보이용자의 요구까지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재무제표는 기업실체가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주석에는 법률적 요구에 의해 작성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명칭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야 하며 관련 법규와의 상충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또는 소유주지분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등 대체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재무제표기본가정

1. 기업실체의 가정(Economic entity)

기업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회계단위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실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실체 개념은 법적 실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단일의 법적 실체가 아니지만 단일의 경제적 실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회계단위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된다.

2. 계속기업의 가정(Going concern)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

3. 기간별 보고

기업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실체의 이해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적시성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발생주의 회계

재무회계의 기본적인 특징으로서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의 정의 및 인식, 측정과 관련이 있다. 다만,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발생기준은 기업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 회계에 의하면, 재화 및 용역을 신용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게 되고, 현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자 또는 급여 등에 대해 부채와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즉, 일정시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주주지분의 금액을 제시한다.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과 부채의 가액만으로 기업실체의 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상태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가치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실체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 수행된 기업활동의 결과로서 주주지분이 어떻게 증가, 감소하였는지 보여준다.

포괄주의 관점에서 작성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일정 기간의 포괄이익과 그 구성요소인 수익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투자자 및 채권자 등의 정보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에 대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에 관한 정보, 투자활동에 관한 정보 및 자본조달을 위한 재무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정기간 동안 수행된 기업의 활동별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측정하고 그 결과 기말의 현금이 기초에 비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나타낸다.

현금흐름 정보는 기업실체의 현금지급능력,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 및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여러 기업실체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비교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자본변동표

기업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소유주의 투자는 현금, 재화 및 용역의 유입, 또는 부채의 전환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기업실체의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현금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실체의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들에 대한 정보는 다른 재무제표 정보와 더불어 당해 기업실체의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 및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소유주의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포괄이익, 수익, 비용,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기업의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회계보고서로 스톡(stock)개념에 의해 측정된다. 재무상태란 특정일(일정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보고서이다.

재무상태표상 우측은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며 좌변의 자산(자본 및 부채의 사용용도)의 크기에 상응하는 자금의 출처를 나타내 주고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소유주의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포괄이익, 수익, 비용,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 자산(Assets)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산은 자원 또는 경제적자원으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실체에 의해 획득되었거나 통제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future economic benefit)이다.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매출채권, 상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및 선급비용 등 현금전환 속도가 빨라서 1년(1 영업주기)이상 동일형태를 지속하지 못하고 빈번하게 변동하는 성질의 자산이다.

2. 부채(Liability)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의무란 일정한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겐 계약이나 법령에 의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와 상관습이나 관행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가 있다.

부채의 인식은 과거의 거래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현재시점에서 부담하는 의무가 존재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채란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의무로 미래에 금전, 재화, 용역, 등을 제공하여 갚아야 할 빚이다.

부채는 만기가 도래하는 순서대로 재무상태표상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는 단기부채라고도 하고, 회계기간말로 1년(영업주기) 이내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부채이다. 비유동부채(noncurrent liabilities)는 장기부채라고도 하고,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사채, 장기 차입금, 장기 미지급금, 유동성장기부채 등은 비유동성(고정)부채가 된다.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처럼 1년 내에 지불되어야 할 채무를 말하며 외상매입금, 지급 어음 및 증식부채(accrued liabilities, 아직 지불하지 않은 세금, 급여, 임대료, 수도광열비 및 기타 미지불채무)가 가장 주된 유동부채이다.

3. 자본(Capital)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이다.

자본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기업의 소유주 또는 주주의 청구권, 즉 소유주지분이다.

자본은 다시 소유주의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요소로 구분한다. 납입자본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금액으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자본금은 주식액면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법정자본금으로 불리며, 자본잉여금은 액면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의미한다.